

최근의 경기동향 분석과 가계의 대응전략

최 속 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 서론

우리 경제 불안요인의 큰 축이었던 미-이라크戰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내외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스와 북핵 문제 등 일부 불안요인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의 불투명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불안하고 특히 내수의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이라크 전쟁 이전인 2월 말 배럴당 31.01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라크전 이후 하향 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4월 28일 현재 23.48달러로 하락하였다. 향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24달러 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 수준보다는 유가 변동폭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석유를 덜 사용하고 다른 에너지자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체감경기지표의 하나인 소비자태도지수에 따르면 2003년 2/4분기 중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4/4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심리 위축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미-이라크 전쟁이 단기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 북핵 문제, 카드채,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을 반영하여 3분기 연속 기준치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여 실질

국민총소득증가율 6.9%를 상회하였다. 최근 가계소비가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 확대와 저금리 영향 등으로 가계의 차입소비성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특소세 인하의 영향으로 내구소비재 지출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총저축률의 추세선이 1989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저축률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경제주체의 저축결정 요인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 속도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1996년~2002년중 우리나라의 총저축률과 가계저축률의 하락 폭은 OECD 국가의 평균 하락폭에 비해 약 3배 이상이다. 2002년 1/4~3/4분기중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하락 폭은 1996년 대비 -6.9%p인 반면, OECD 평균 저축률 하락폭은 -2.1%p에 불과하였다.

또한, 2002년 하반기 이후 경기 위축세가 심화되고 가계대출 부실화가 표면화되면서 금융부실을 초래하여 왔다. 최근 은행 및 카드사의 자구노력으로 연체율이 하락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신용불량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2002년 말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는 각각 264만 명, 1,335명으로 전년에 비해 7.6%, 98.7% 증가하였다. 신용불량자는 급증세를 이어가 2003년 3월말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누적과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의 현명한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심리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요불급한 소비가 아니면, 소비지출을 줄이고 현금보유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수입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가계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습관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II 경제동향과 전망

1. 최근의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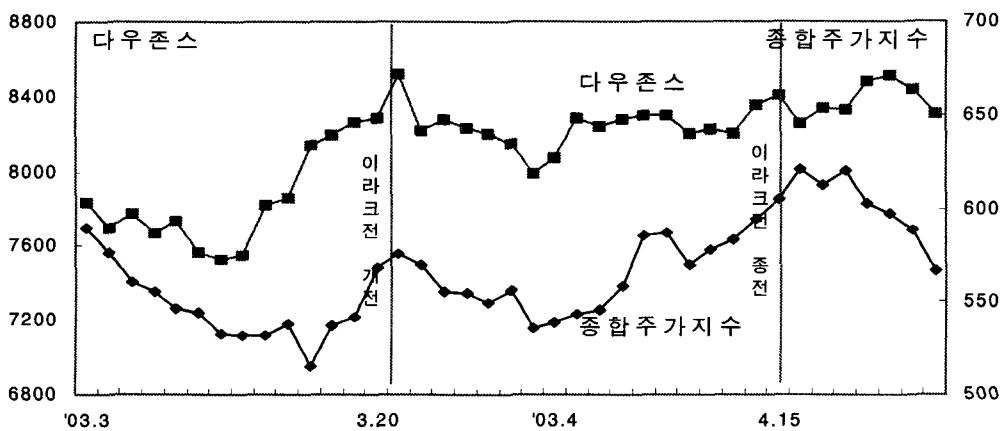
1) 국내경기는 내수위축이 지속

미-이라크戰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내외 경제가 여전

히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전쟁이 단기 종결될 경우 미국, 유로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p, 0.1%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IMF(4월 9일)에 이어 OECD, 세계은행, WTO(4월 24일), 아시아개발은행(4월 28일) 등은 회원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전쟁 종결 이후에도 주요국 증시의 회복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4월 중 백화점 정기세일 매출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가 급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소매판매액은 이미 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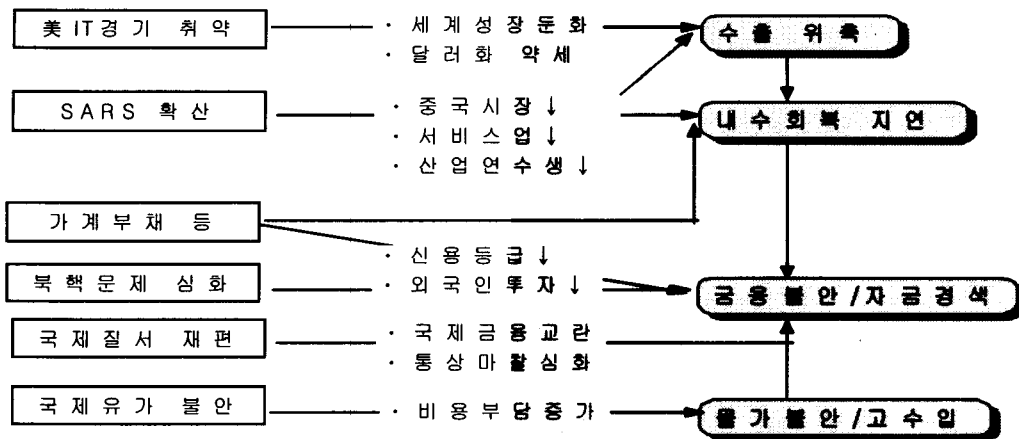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이라크戰 이후 국내의 경제의 향방」, 2003. 4. 30

사스, 북핵 문제 등 일부 불안요인이 향후에 더욱 증폭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 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불안요인 간에 상승작용이 발생하기 쉽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 상황이 불투명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불안하고 특히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중 소비자평가지수는 79.6을 기록하여 미 테러사태 발생 당시 (79.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월말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9%로 전월비 0.4% 포인트 상승하였다. 2002년 12월 도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1.9% 증가에 그쳐 2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의 생산도 둔화되고 있다. 1월중 자동차생산은 전월대비 5.6%

주요 대내외 불안요소들과 파급효과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이라크戰 이후 국내외 경제의 향방」, 2003.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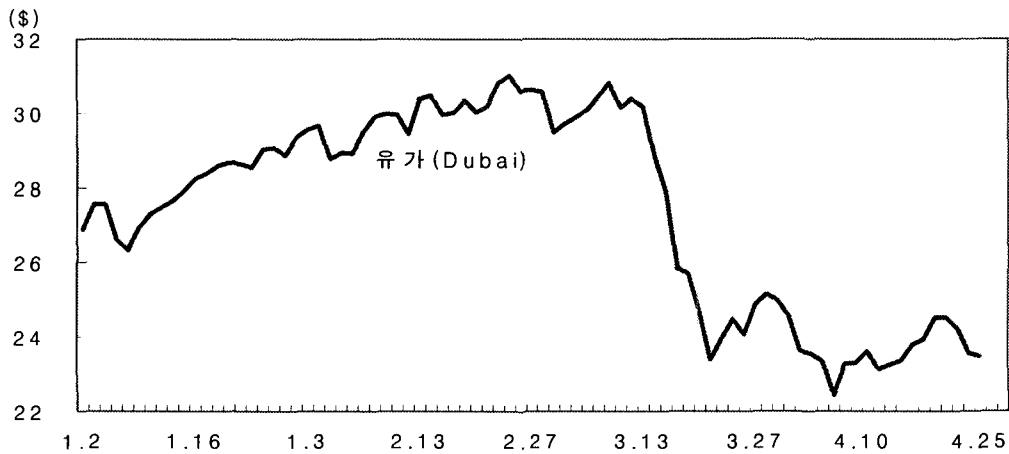
감소했고 재고는 30% 이상 증가하였다.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의 판매도 1월 중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유통경기는 신년 바겐세일, 설 특수에도 불구하고 부진하였고, 반도체업계는 수요회복 지연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위축으로 전반적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7월 이래 두 자리수 증가세를 시현하여, 전년동기비 수출증가율이 2002년 상반기의 -3.3%에서 하반기에 20.8%로, 그리고 2003년 1월에는 21.7%를 달성하였다. 현재와 같은 내수 위축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는 2002년의 반짝 상승 후에 다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유가동향

국제유가는 이라크전 이후 하향 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전쟁 이전인 2월 말 배럴당 31.01달러, 3월 19일 25.58달러에서 4월 28일 현재 23.48달러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원유생산 시설 복구 및 개량 등을 통해 공급량이 증가하는 반면, 세계 원유수요 증가세는 미약하여 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생산 경쟁, 러시아의 원유공급 확대 노력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였다. OPEC의 감산합의(200만배럴/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원유증산이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어 원유공급 불안은 미미한

유가 변동 추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이라크戰 이후 국내의 경제의 향방」, 2003. 4. 30

형편이고, 러시아 등 비OPEC국가들의 생산이 증대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 및 공급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총파업 이후 원유생산량이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고, 나이지리아 역시 국내 정세 불안이 진정되면서 최근 정상조업 재개하였다. 반면, 2003년중 세계경기 회복이 미진해 석유수요 증가율은 0.5~1.0%에 머물 전망이다.

세계 지역별 원유수요 및 공급(2002년)

(단위: 백만배럴/일, %)

원 유 수요			원 유 공 급		
지역	수요량	비중	지역	공급량	비중
OECD	47.56	61.9	OPEC	28.54	37.3
미국	19.69	25.6	사우디	7.38	9.6
EURO4	8.24	10.7	이라크	2.01	2.6
한국	2.18	2.8	베네수엘라	2.29	3.0
비OECD	29.31	38.1	비OPEC	48.05	62.7
중국	5.16	6.7	러시아	7.66	10.0
남미	4.72	6.1	멕시코	3.59	4.7
합계	76.88	100.0	합계	76.59	100.0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03.2, 삼성경제연구소의 CEO Information 「이라크戰 이후 국내의 경제의 향방」, 2003. 4. 30에서 재인용

향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연평균)는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인 배럴당 24달러 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 수준보다는 유가 변동폭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연평균 1달러 상승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국 제 수 지	수 출	수 입
-0.1% p	0.15% p	-7.5억 달러	-1.7억 달러	5.8억 달러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3) 물가 동향

물가오름세가 4% 대에 육박하고 있다. 2002년 11월 이래 3%대 중반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하고 있다. 2003년 3월 소비자물가는 2001년 8월(4.7%) 이후 최고치인 4.5%까지 상승하였다.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집세 등 서비스 요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상승률은 전체 지수물가를 크게 상회하였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¹⁾는 2003년 3월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하였다. 2003년 4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 상승하여 지난 11월 이후 3% 후반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고, 생활물가도 지난 11월 이후 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상승률 추이

	2002년					2003년			
	8	9	10	11	12	1	2	3	4
소비자물가	2.4	3.1	2.8	3.5	3.7	3.8	3.9	4.5	3.7
생활물가	1.8	3.0	2.2	3.2	3.7	4.0	4.2	5.5	4.3

자료: 통계청, 2003년 4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4

향후에도 국제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5%포인트 상승한다. 2002년 인상이 억제되었던 공공요금들의 일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요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버스,

1)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느끼는 156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표이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을 인상할 전망이다. 물가상승 요인이 적은 품목들의 가격이 동반하여 오르는 고비용-고물가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4) 제로금리 시대

최근 국고채 금리가 4%대로 낮아지면서 실질금리가 0%대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리는 1970년대 20%, 1980년대 15%, 1990년대 10%대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4%대까지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정책으로 일시 30%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저금리 정책,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1998년 10월부터 금리가 한자리 수로 하락하였다.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예금금리는 이미 1% 미만인 제로금리 수준이다. 2002년 12월 이후 예금금리가 4% 미만으로 하락했고, 최근 3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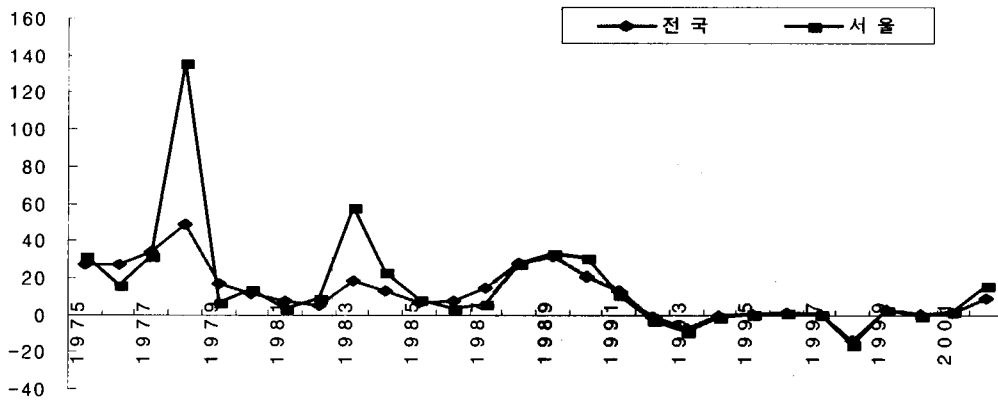
제로금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고비용구조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긍정적 효과보다는 제로금리까지 내려간 지나친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큰 상태이다.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의 미래가 불안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값 폭등 등 자산버블이 형성된 뒤 자산가치의 폭락, 금융비용 감소로 한계기업이 존속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견실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투기, 복권 열풍 등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다.

저금리로 야기된 가계부채 급증이 가계수지 악화와 개인파산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카드사 연체율이 급등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6년 말 96만 명에 불과했던 신용불량자수가 2002년 말에는 260만 명을 상회하였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200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97년 처음 도입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998년 350건에서 2001년 672건으로 급증하였고, 2002년 1~9월 중 794건이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 첫 달인 2002년 11월 94건에서 2003년 1월 900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저금리로 인해 빚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져 상환능력 이상으로 차입을 확대했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다.

부동산 거품, 파생상품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최근 들어 복권 열풍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저축수익률 하락으로 고위험·고수익

의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2002년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일부 지역은 투기 열기가 여전하며, 로또복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월 첫 주 판매량이 2,608억 원으로 전주 판매량 700억 원의 3배를 기록하였다.

지가변동률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 각년도

따라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원동력인 저축의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공제상품 축소를 통해 소극적으로 세수확대를 도모하기보다는 저축과 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은행상품 중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크게 축소되어 저축 의지가 크게 감퇴하였다. 그러므로, 주요 저축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퇴직관련 저축에 대해 세금을 유예 또는 연기해주는 세금우대 퇴직저축제도를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중 경기하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SARS가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제불안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표로 한국의 국가위험도도 상승하였다. 그리고 카드채 문제, 신용불량자 양산 등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3년 2/4분기까지는 경기위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4분기에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 내수 위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물가 급등 등으로 경제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2/4분기에는 중국, 홍콩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SARS 피해로 인해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 1/4분기 중 중국(홍콩 포함)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심리악화에 따른 소비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003년 경제성장률은 4%를 하회할 전망이다. SARS 확산이 상반기 중에 진정되고, 북핵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안정을 찾게 되더라도, 우리경제는 2003년 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하반기 중에는 급격히 위축되었던 내수가 다소 안정될 것이지만, 가계부채 누적으로 예전과 같은 큰 폭의 소비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RS 확산이 제어되면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과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안정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세계교역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 IT경기가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3년 주요 국내경제 지표 전망

	(전년대비,%)	
	2002년	2003년
경제성장률	6.3	4.0
민간소비	6.8	2.8
고정투자	4.9	3.5
설비투자	6.8	6.0
건설투자	3.3	1.5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6
경상수지(억 달러)	82.4	6.4
무역수지	103.4	27.8
수출(억 달러)	1,624.7	1,763.6
(증가율)	(8.0)	(8.5)
수입(억 달러)	1,521.3	1,735.8
(증가율)	(7.8)	(14.1)

주: 2003년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SARS 확산 제어를 전제로 한 전망치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이라크戰 이후 국내의 경제의 향방」, 2003. 4. 30

2003년 소비자물가는 3.6%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말 이후 상승한 유가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상반기 중에는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2002년 하반기 이후 10%대의 높은 임금상승, 상반기 서비스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이후 유가의 하향 안정과 원화환율 절상 추세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악화 등으로 흑자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76억 달러 줄어든 6.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은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하였으나, SARS의 영향 등으로 2/4분기 이후 한자리대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며, 수입은 유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투자 확대로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연간으로는 14.1%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SARS가 계속 확산되고 복핵 문제가 진전이 없을 경우, 2003년 경제성장률은 3%대 밑으로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반기의 내수위축, 수출 둔화 추세가 가속되고 하반기에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3. 정책과제

우선적으로, 경제심리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심리 불안이 전반적인 경제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계속 불안하고 불신이 증폭되면 위기재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자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결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기업과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절 라디오에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불필요한 과잉반응(over-reaction)을 억제해야 한다. 경제정책 기조를 사전에 시장에 알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평가·발표하여 과대·과소 판단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라크간 전쟁,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확고한 대응 원칙을 천명하고,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하여 에너지절약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Ⅲ 체감경기지표 분석

1. 2003년 2/4분기 체감경기 지표 분석

경제통계는 실물지표와 체감지표로 구성된다. 실물지표는 실제로 발생한 경제현상을 지표화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통계로서,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환율, 실업률, 등이 해당된다. 체감지표는 경제주체가 느끼는 경제현상을 지표화한 것으로서 주관적인 통계이다. 전경련과 한국은행의 BSI,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CSI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행은 기업경기조사(BSI)를 91년 3/4분기부터, 소비자동향조사(CSI)를 95년 3/4분기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소비자전망조사(CSI)를 98년 11월부터 월별로 조사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체감경기조사(BSI)를 83년 1월부터 월별로 조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태도조사²⁾는 경기의 흐름과 전환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미국의 '소비자태도조사'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조사하고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의식과 소비동향을 조사하여 경기와 소비의 동향분석 및 전망에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태도조사는 91년 4/4분기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패널 데이터(Panel Data)의 특성을 살려 초기 설문대상자를 90%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03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³⁾는 전분기(48.5)보다 하락(4.3p)한 44.2를 기록하여 소비심리 위축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4/4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심리 위축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미-이라크 전쟁이 단기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 북핵 문제, 카드채,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을 반영하여 3분기 연속 기준치인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2) 모집단 및 표본추출은 전국 주택전화 가입자중 지역, 경제력, 인구분포 등을 감안하여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1,000가구를 추출하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3) 소비자태도지수는 현재 및 미래의 생활형편과 경기, 내구재 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이다. 소비자태도지수가 기준치인 50을 상회할 경우 소비자의 현재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태도지수 추이

	2002년				2003년	
	1/4	2/4	3/4	4/4	1/4	2/4
소비자태도지수	55.7	57.1	55.5	47.3	48.5	44.2
현재생활형편지수	49.1	50.0	50.0	46.8	47.0	43.2
미래생활형편지수	60.2	60.5	58.4	53.8	56.3	54.1
현재경기판단지수	50.9	58.2	54.9	40.1	35.1	23.3
미래경기예산지수	62.2	62.2	60.6	47.0	54.7	51.9
내구재구입지수	56.0	54.5	53.8	49.0	49.5	48.4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소비자태도조사 2003년 2/4분기, 2003. 5

2. 2003년 2/4분기 부가조사: 현 경기불안 요인과 소비자 심리

삼성경제연구소의 부가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소비지출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7.7%가 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침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핵문제가 20.9%, 소비, 주식시장 침체 등 내수경기 침체가 15.2%, 카드채 문제 등 개인신용도 악화가 13.7%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1/3 이상인 38.4%가 현 국내 경기불안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20.4%가 최근 3개월(2월~4월)간 주요 품목 구입을 유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소득계층별로는 1천~5천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전체 평균의 응답비율을 상회하였다. 구입을 유보한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2.4%를 차지한 품목은 자동차였으며, 다음으로 컴퓨터가 17.2%, PDP를 포함한 대형 TV가 9.3%, 냉장고가 7.8%, 김치냉장고가 6.9%를 차지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는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이 줄인 항목으로 외식비가 29.9%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의료구입비가 23.1%, 가구 및 가정용품이 11.3%, 교양오락비(영화관람, 놀이공원, 유흥비 등)가 8.9%를 차지하였다.

3. 2003년 1/4분기 부가조사: 대내외 위협요인과 가계의 경제활동

2003년 1/4분기 소비자태도 부가조사로 ‘대내외 위협요인과 가계의 경제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02년에 가계의 경제활동 중 소비지출 변화가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2.5%가 작년과 비교하여 가계의 경제활동 중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저축(21.7%), 부동산(10.9%), 가계대출(9.6%), 주식(4.8%) 순이었다. 연평균 소득 5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소비지출보다는 저축의 변화가 더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과 저축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인 1천만원 이하의 가구는 작년과 비교하여 가계경제활동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다른 소득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

한편, 대내외 위협요인 중 가계경제활동에 가장 많은 제약을 준 심리불안 요인으로 46.0%가 미-이라크간 전쟁가능성 고조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금융 관리 강화(가계대출 억제, 카드사용 제한 등)가 36.1%, 북한 핵 문제(17.9%)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소비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저축을 줄인다(20.7%), 부동산 구입 보류 혹은 매각(12.7%), 가계대출 상환(6.9%), 주식투자 축소(6.8%) 순으로 답변하였다. 대내외 여건 악화시 저축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평균 소득 1천만 원 이하와 20대에서 각각 28.8%, 24.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내외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우, 전체조사대상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1.4%가 저축증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부동산 구입(18.9%), 소비지출 증가(12.3%), 주식투자 확대(8.5%), 가계대출 증가(4.4%) 순으로 답변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73.0%인 대부분의 가계에서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가계대출 보유 비율이 각각 82.3%, 81.0%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을 받은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2.1%가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할부금융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부동산, 금융기관, 직장 등을 통한 담보 및 보증 대출이 46.6%, 친구, 친척, 가족에 의한 대출이 1.4%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신

용대출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00만원 이하 가구는 담보 및 보증 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4. 2002년 4/4분기 부가조사: 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2002년 4/4분기 소비자태도 부가조사로 '가계의 저축행태 분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가구의 2/3 정도인 63.5%가 연간소득의 30% 미만을 저축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잔액이 연간소득의 10% 미만, 10~30%인 경우가 각각 32.3%, 31.2%로 나타났으며, 연소득의 100% 이상을 저축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6.1%에 불과하였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저축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9.6%나 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저축잔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소득이 각각 3~5천만원, 5천만원 이상인 계층의 24.3%, 17.3%의 보유저축규모가 연간소득액의 30~50%인 반면, 연평균소득이 1천만원 이하, 1~2천만원 계층 중 각각 26.9%, 10.3%는 현재 보유하고 저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연간소득액대비 보유저축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36.3%가 보유저축규모가 연간소득의 10% 미만이었으며, 보유저축이 없는 경우도 14.6%나 되었다. 반면, 20대 및 30대 중 약 20%의 보유저축규모가 연간소득의 30~50%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83.2%가 월평균 소득의 30% 미만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대비 저축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계층의 33.8%는 월평균소득의 20~30%를 저축하고 있는 반면, 연평균소득이 1천만원 이하 중 32.8%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대비 저축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경우 40.2%가 월평균 소득의 10% 미만을 저축한다고 응답했으며,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17.4%나 되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52.9%가 가계의 월평균 소득대비 저축규모가 작다고 지적하였다. 전체 가구의 35.2%만이 소득대비 저축규모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고, 소득대비 저축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가구는 11.9%에 불과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29.7%가 소득대비 저축수준이 지난 1~2년 동안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고, 소득대비 저축수준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6%에 불과하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난 1~2년 동안 저축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평균소득이 2천만원 이하

인 경우 중 33.6%가 소득대비 저축수준이 감소한 반면,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중 25.1%는 소득대비 저축수준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최근 1~2년 동안 저축이 많이 감소하여, 50세 이상 중 32.0%가 1~2년 전에 비해 저축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반면,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26.2%, 28.0%가 저축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2년 동안 저축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의 52.3%가 근로소득 감소를 소득대비 저축수준 감소의 주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소비지출 증가로 소득대비 저축수준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도 33.1%나 되었다. 소비지출은 자녀교육비(51.0%), 식료품 등 생활비(21.4%), 자동차 등 내구재(9.2%)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감소가,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증가가 소득대비 저축수준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가구의 26.8%가 향후 저축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여 소비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 중 63.9%는 저축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며, 7.5%만이 향후 저축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경제상황 고려했을 때 저축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연평균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6.0%가 향후 저축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저축을 증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2.7%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현재 경제상황 고려시 향후 저축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20대의 경우 44.5%가 향후 저축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 절반 수준인 20.7%에 불과하였고,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 중 71.6%가 현재 경제상황 고려시 향후 저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부채보유 가구 중 39.9%가 향후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할 경우 부채상환을 위해 당분간 저축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하였다. 부채보유 가구 중 46.4%는 자산대비 부채가 적절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해도 저축을 현재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부채보유 가구 중 13.7%는 자산대비 부채가 과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한편,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53.9%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 중 72.2%가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저축만 증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증가시 소비를 저축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한 가구는 10.7%에 불과하였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증가시 저축이 상대적으로 많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증가시 저축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평균 소득 1천만원 이하는 81.5%인 반면, 5천만원 이상은 69.8%이었으며, 특히 5천만원 이상 소득층의 15.2%가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하였고, 14.4%는 저축과 소비를 동일한 비율로 늘리겠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증가시 저축을 더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하여, 50세 이상은 80.5%인 반면, 20대는 63.6%이었다. 특히 20대 중 16.1%는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하였고, 20.2%는 저축과 소비를 동일한 비율로 늘리겠다고 답변하였다.

최근 1~2년 동안 고가품 및 명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15.7%이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고가품 및 명품 구입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3.4%만이 고가품을 구입한 경험한 반면, 연평균 소득인 3~5천만원, 5천만원 이상의 경우 각각 22.3%, 24.5%가 고가품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많이 구입된 고가품은 고가의 전자제품(56.7%), 수입 및 대형 자동차(27.4%)로 나타났으며, 명품 의류 및 잡화 등도 각각 7.0%, 7.6%를 차지하였다. 고가품 구매경험이 있는 사람 중 38.9%는 고가품 구매를 위해 차입을 하거나 저축을 줄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소년의 경제의식조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2년 12월에 실시한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대다수가 용돈을 받으며, 그 중 3/4이 5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중고생의 대다수인 84.2%가 용돈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용돈을 받는 지 여부

(단위: %)

	전체	성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예	84.2	82.9	85.4	87.6	80.8	80.5	81.9
아니오	15.8	17.1	14.6	12.4	19.2	19.5	18.1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2003. 2

- 4) 조사 대상은 남녀 중고생 1,275명(중학생 635명, 고등학생 640명, 전국 6대 도시)이며, 조사원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02. 12. 20~26으로 조사 내용은 중고생의 직업관, 경제의식, 경제활동 등이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용돈 받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고교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돈 받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학교 및 계열별 용돈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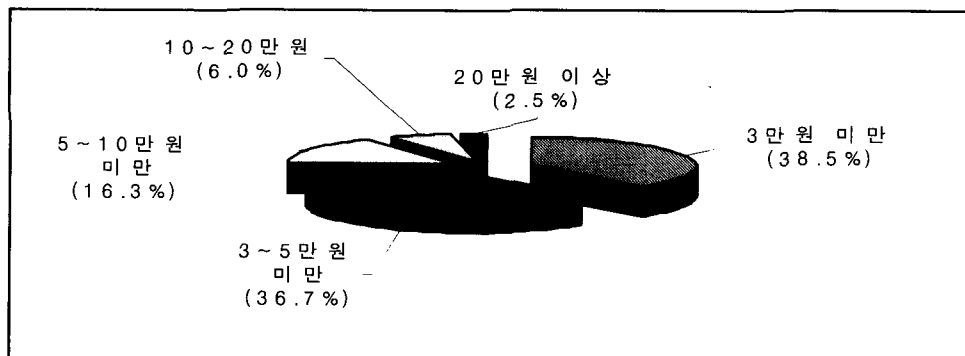
(단위: %)

	성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3만원 미만	40.6	36.4	55.6	20.1	18.8	24.8
3~5만원 미만	33.3	40.1	33.8	39.8	40.6	37.2
5~10만원 미만	15.5	17.1	6.8	26.5	28.2	20.4
10~20만원	7.3	4.6	2.7	9.5	8.7	12.4
20만원 이상	3.2	1.9	1.1	4.1	3.7	5.3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2003. 2

용돈을 받지 않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고교 1학년은 11.9%, 2학년은 18.3%, 그리고 3학년은 28.3%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용돈을 받지 않는 비율이 56.3%로 받는 비율(43.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돈을 받는 학생 중 3만원 미만(38.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5만원 미만(36.7%), 5~10만원 미만(16.3%), 10만원 이상(8.5%)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용돈을 받는 학생 중 40달러 미만이 전체 비율에서 가장 높은 45% 정도를 차지하였다.

월간 용돈 금액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2003.2

조사대상 중고생의 70.7%가 금전출납부 기록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금전출납부를 기록하지 않는 남학생(77.2%)의 비율이 여학생(64.2%)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전출납부 기록을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여 중1의 65.2%, 중2의 70.6%, 중3의 71.0%, 고1의 72.2%, 그리고 고3이 73.7%로 나타났다.

금전 출납부 기록 여부

(단위: %)

	전체	성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항상 기록한다	3.6	3.0	4.3	3.3	3.9	3.4	5.8
자주 기록한다	3.8	3.4	4.1	4.7	2.8	3.2	1.4
가끔 기록한다	21.3	15.7	26.9	22.4	20.2	20.5	18.8
전혀 안 한다	70.7	77.2	64.2	69.0	72.5	72.5	72.5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2003. 2

조사대상 중고생의 61.4%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64.2%)의 비율이 남학생(58.7%)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학교 및 계열별로도 보유 비율이 60%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보유 여부

(단위: %)

	전체	성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예	61.4	58.7	64.2	62.5	60.3	59.8	62.3
아니오	38.6	41.3	35.8	37.5	39.7	40.2	37.7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2003.2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유한 학생 중 저축방법으로는 용돈의 일부를 저축한다고 답한 비율이 52.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저축한다는 응답 비율이 1/3이 넘는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저축하는 비율은 7.2%에 불과한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는 비율이 25.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은행계좌 보유한 학생 중 저축하는 방법

(단위: %)

	전체	성별		계열별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인문계고	실업계고
용돈 중 일부를 저축	52.6	49.5	55.6	52.1	53.1	54.0	50.0
부모님께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저축	37.5	40.2	35.1	42.6	32.4	34.7	24.4
아르바이트 수입 일부를 저축	7.2	7.4	6.9	1.8	12.7	9.0	25.6
친척이 주시면 저축	1.3	1.6	1.0	2.3	0.3	0.3	72.5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2003. 2

IV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

1.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동향

2002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여 실질 국민총소득증가율 6.9%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가계소비가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 확대와 저금리 영향 등으로 가계의 차입소비성향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특소세 인하의 영향으로 내구소비재 지출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소비와 국민총소득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2002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
실질 GNI	3.6	0.5	1.3	-0.1	3.4	1.3	7.7	6.2	6.9
실질 가계소비	8.1	1.4	4.1	4.9	6.7	4.3	8.4	7.7	8.1
가계소비지출의 성장기여율(%)	43.4	20.8	70.0	129.2	84.4	70.2	76.7	61.8	68.7

자료: 한국은행,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동향과 특징, 2002. 10

한편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은 국산소비재 보다는 수입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상반기중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8.0% 증가에 머문 반면, 소비재수입은 20.9%의 높은 증가세 지속하였다. 최근 가계소비지출의 특징은 수입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지출패턴의 고급화·대형화 및 레저추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차입에 의한 소비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2년 상반기중 가계의 전체 상품소비지출중 수입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중도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가계소비지출의 수입품의존도는 불과 지난 5년 사이에 10.5%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라 중국 등으로부터 중저가 생필품의 수입이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으나 불요불급한 고급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저금리기조 지속, 소매금융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면서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을 통한 가계의 소비자금 차입이 크게 늘어나 금년 2/4분기중 가계의 차입소비율(판매신용증가액과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증가액의 합계/가계소비지출액)이 9%를 상회하였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중 적지 않은 규모가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포함할 경우 차입에 의한 가계소비지출의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상적인 소득이 없는 대학생등 신세대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카드 연체율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가계의 차입소비율 추이

(단위 : 10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1/4	2002.2/4	2002상반
A. 판매신용	-8,379.2	4,272.3	3,735.3	12,323.7	1,154.1	3,762.1	4,916.2
B. 현금서비스+카드론	-2,754.5	3,897.4	16,397.9	8,358.0	4,126.8	4,182.4	8,309.2
C. 소비성차입(A+B)	-11,133.7	8,169.7	20,133.2	20,681.7	5,280.9	7,944.5	13,225.4
D. 가계소비지출	237,996.7	266,031.0	293,660.3	318,394.5	84,843.0	87,577.5	172,420.5
E. 차입소비율(C/D)	-4.7	3.1	6.9	6.5	6.2	9.1	7.7

주: * A,B,C 금액은 전기대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동향과 특징, 2002. 10

가정용 주요 내구소비재(자동차, TV·냉장고 등)중 대형 고가제품이거나 레저용 제품일수록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등 소비지출패턴의 대형화·고급화 및 레저추구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승용차의 경우 경·소형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레저용 차량, 대형 승용차 및 수입승용차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이 지나치게 고가·대형화하고 레저화하고 있는 현상은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승용차 내수판매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2002		
		1/4	2/4	3/4	4/4	연간	1/4	2/4	1-7월
경.소형	-14.9	-10.2	1.9	-21.0	5.1	-7.3	0.2	-6.7	-2.7
	(30.6)	(30.5)	(28.5)	(27.3)	(26.2)	(28.1)	(24.8)	(23.1)	(24.2)
중형	16.7	15.6	26.0	4.6	29.5	17.8	14.0	5.7	8.6
	(22.7)	(27.6)	(25.9)	(27.4)	(24.9)	(26.4)	(25.6)	(23.8)	(24.9)
대형	15.6	-1.6	34.3	29.3	40.7	25.1	33.0	38.2	36.6
	(5.5)	(6.3)	(6.7)	(7.3)	(6.8)	(6.8)	(6.8)	(8.0)	(7.7)
SUVs 등	59.2	-20.9	4.2	-4.3	-3.9	-6.0	47.6	32.0	34.3
	(40.9)	(34.9)	(38.2)	(37.2)	(41.3)	(38.0)	(41.8)	(43.8)	(42.0)
수입차	83.8	84.8	74.3	95.4	53.1	75.5	72.0	123.9	103.2
	(0.4)	(0.7)	(0.7)	(0.8)	(0.7)	(0.7)	(1.0)	(1.3)	(1.2)

주: ()내는 판매대수 비중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02년 들어 청년층(25~34세) 가구의 소비지출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상회할 뿐 아니라 그 증가폭도 전체가구의 평균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25~29세 가구의 2002년 2/4분기중 소비지출 증가율은 18%를 상회하여 전체소비 지출을 주도하였다.

2. 가계신용 동향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잔액은 439.1조원으로서, 2001년말의 341.7조원에 비해 97.4조원 증가하여 8.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2년말 현재 가구당 가계신용잔

액은 2,915만원으로 2001년말의 2,303만원에 비해 612만원 증가하였다. 이중 가계대출잔액이 391.1조원으로 가계신용 전체의 89.1% 차지함으로써 2001년 12월말의 303.5조원에 비해 87.6조원(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대출이 65.3조원(41.7%)이 대폭 늘어난 때문이다.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의 판매신용잔액은 47.9조원으로 9.8조원(25.7%) 증가하였다.

형태별 가계신용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2002년말			
					3말	6말	9말	12말
가계신용잔액(A+B)	183.6 (-13.0)	214.0 (16.5)	266.9 (24.7)	341.7 (28.0)	368.1 (33.3)	397.5 (34.3)	424.3 (34.1)	439.1 (28.5)
가계대출잔액(A)	165.8 (-10.3)	191.9 (15.7)	241.1 (25.6)	303.5 (25.9)	328.8 (31.8)	354.4 (33.7)	379.9 (34.2)	391.1 (28.9)
예금은행	52.9 (-4.7)	76.3 (44.2)	107.2 (40.5)	156.7 (46.1)	174.5 (54.2)	192.6 (53.1)	209.8 (51.3)	222.0 (41.7)
여신전문기관	12.0	16.2	33.6	43.7	49.8	56.1	61.5	57.1
할부금융회사	2.3	2.6	3.6	5.3	7.4	9.5	10.9	10.2
신용카드회사	9.7	13.6	30.0	38.3	42.4	46.6	50.6	46.9
국민주택기금 등	17.1	18.8	22.8	21.2	20.3	19.6	17.7	18.3
판매신용잔액(B)	17.8 (-32.0)	22.1 (24.0)	25.8 (16.9)	38.2 (47.7)	39.3 (47.0)	43.1 (39.2)	44.3 (33.8)	47.9 (25.7)
할부금융회사	5.8	6.1	4.4	6.2	6.6	7.6	8.2	8.1
판매회사	5.6	6.2	4.2	3.1	2.7	2.8	2.4	2.6
신용카드회사	6.4	9.8	17.2	28.9	30.0	32.6	33.7	37.2
가구당가계신용잔액 ¹⁾ (만원)	1,321	1,500	1,855	2,303	2,482	2,679	2,860	2,915

주: 1) 가구수는 2000년말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그외는 "추계가구" 통계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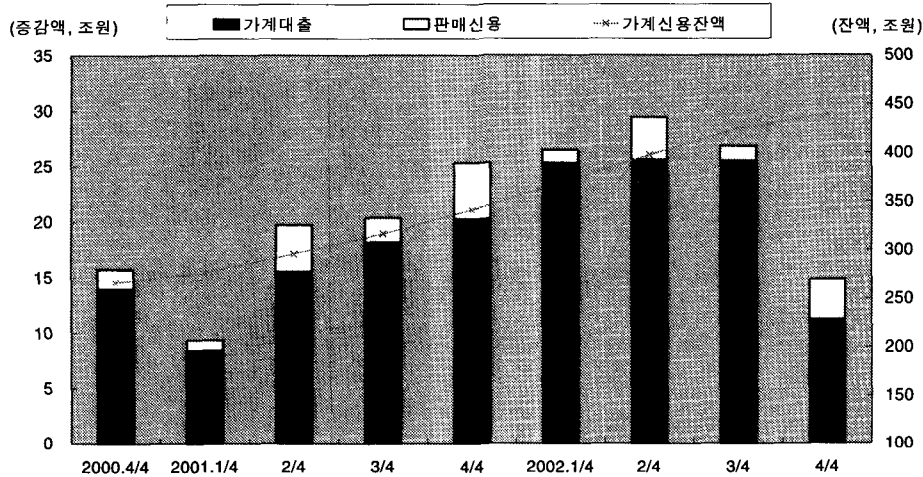
2)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02년중 가계신용 동향, 2003. 3

2002년중 가계신용 증가세를 분기별로 보면, 1/4분기(26.5조원) 및 2/4분기(29.3조원)까지는 2001년 2/4분기 이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3/4분기(26.8조원)중 그 증가폭이 다소 축소된 데 이어 4/4분기(14.8조원)중에는 증가세가 크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는 가계대출 확대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배정상 불이익 부여, 가계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 축소 등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 증감 및 잔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2년중 가계신용 동향, 2003. 3

2002년중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87.6조원 증가하였다. 은행 대출은 저금리기조의 지속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 및 거래확대 등을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약 46조원 증가)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65.3조원 증가하였다. 한편, 여신전문금융기관대출은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확대된 13.5조원 증가하였다.

주택가격 지수 추이

	1999	2000	2001	2002
주택매매가격지수	93.8	94.2	103.5	120.5
(서울아파트)	105.3	109.7	130.9	171.2

자료 : 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1995=100)

그러나, 2002년 4/4분기중에는 은행 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이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 축소 및 한도관리 강화⁵⁾ 등으로 감소로 반전됨에 따라 3/4분기 대출 증가액의 44% 수준인 11.2조원의 증가에 그쳤다.

3. 저축률 동향

국민총저축률은 1970년대 초반 17% 수준에서 1988년 40.5%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2년 상반기에는 26.9%를 기록하였다. 90년대 들어 소비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2001년 이후에는 국민총저축률이 20%대로 하락하였다. 국민총저축률의 추세선이 1989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저축률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경제주체의 저축결정 요인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총저축률 변화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70	1980	1988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p	2002p 상반
국민총저축률 ¹⁾	17.8	24.4	40.5	37.5	35.5	33.4	33.9	32.9	32.4	29.9	26.9
소득 증가율 ²⁾	-	20.7	19.4	20.8	16.2	8.3	-2.3	8.5	8.6	4.5	6.6
소비 증가율 ²⁾	-	30.2	15.4	21.0	16.3	8.9	-3.0	10.2	9.5	8.4	10.7

주 : 1) 국민총저축률 = 국민총저축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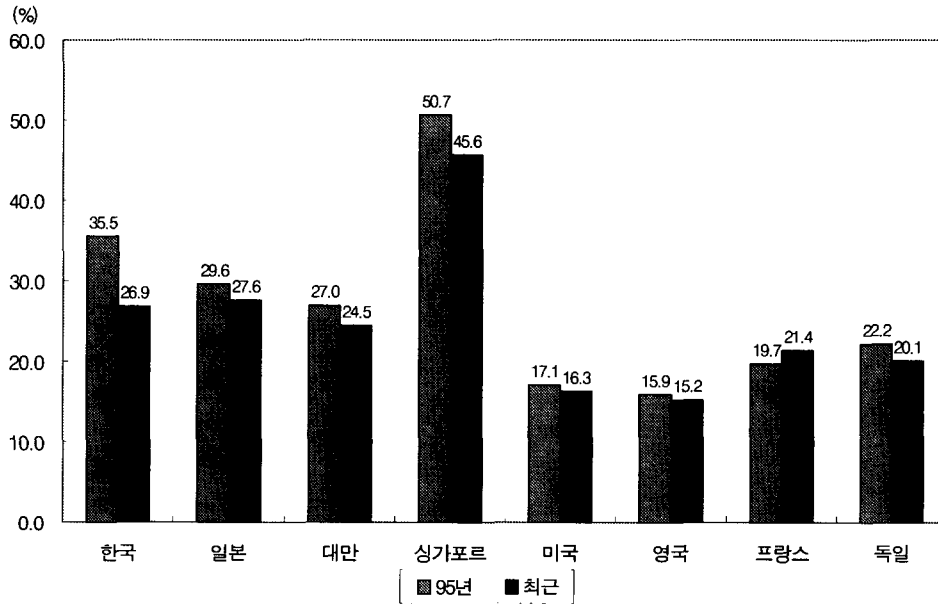
2) 소득증가율과 소비증가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과 최종소비지출의 명목증가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 2002. 10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총저축률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1995년 이후 저축률의 감소 폭은 8.6%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5) 2002년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업무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국민총저축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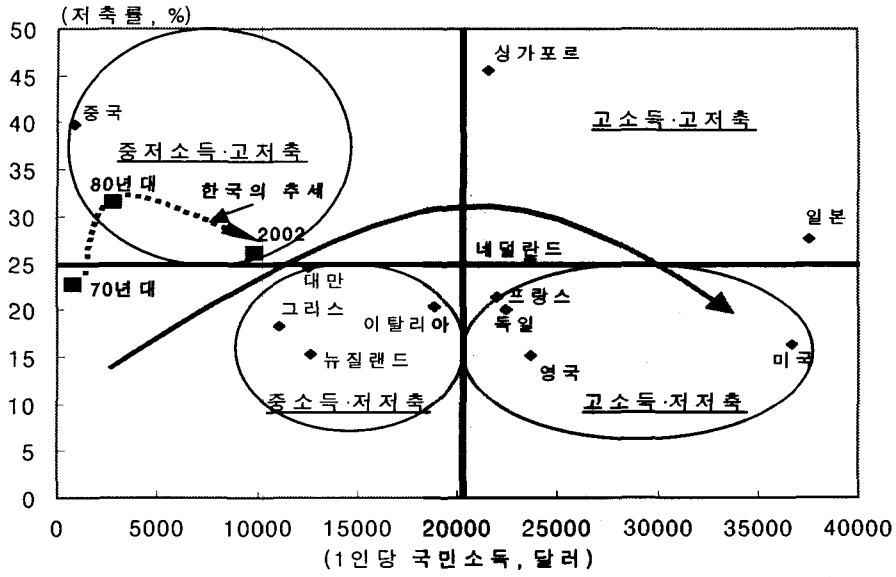


주: 일본은 2000년, 한국·대만은 2002년 상반기, 그 외는 2001년 자료
 자료: 한국은행,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 2002. 10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속도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1996년~2002년 중 우리나라의 총저축률과 가계저축률의 하락 폭은 OECD 국가의 평균 하락폭에 비해 약 3배 이상이다. 2002년 1/4~3/4분기 중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하락 폭은 1996년 대비 -6.9%p인 반면, OECD 평균 저축률 하락폭은 -2.1%p에 불과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1만달러 이하에서 저축수준이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1인당 GDP와 저축률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저소득·고저축 그룹에 속하지만 현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저저축 그룹으로 이동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1인당 GDP 1만 5천~2만달러)을 넘어서면서 저축률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부문별로는 정부저축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반면 가계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개인부문 비중은 계속 하락 하여 가계의 저축부진이 최근 국민총저축률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축률과 1인당 국민소득



- 주: 1) 각 그룹의 분류는 소득은 1인당 GDP 2만달러, 저축률은 25%를 기준으로 함
 2) 한국과 대만은 각각 2002년 3/4분기 및 상반기 기준, 일본은 2000년 기준이고, 나머지 국가는 2001년 기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저축률 변화추이 분석과 시사점, 2003. 2.

부문별 저축비중¹⁾ 추이

(단위: %)

	'95	'96	'97	'98	'99	2000	2001p
국민총저축률	35.5	33.8	33.4	33.9	32.9	32.4	29.9
민간	25.8	23.5	22.8	24.4	23.2	19.3	17.1
개인 ²⁾	13.4	13.1	12.6	19.9	13.0	10.5	-
기업	12.4	10.5	10.2	4.5	10.2	8.8	-
정부	9.7	10.2	10.6	9.6	9.7	13.0	12.8

- 주: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민간 및 정부의 저축비율을 의미
 2) 개인부문은 가계와 개인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
 자료: 한국은행,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 2002. 10

가계저축률⁶⁾은 1990년대 들어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하락 폭이 현저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 일본 수준을 상회하였던 가계저축률이 2000년에는 이를 하회하게 되었다.

6) 가계저축률 = 개인저축/개인처분가능소득

가계저축률¹⁾ 변화 추이

(단위: %)

	'95	'96	'97	'98	'99	2000
한국	19.7	19.0	18.4	26.6	18.7	15.4
일본	18.5	17.6	16.9	17.7	16.6	16.3
대만 ²⁾	17.2	18.8	17.3	16.9	17.2	16.1

주: 1) 가계와 개인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

2) 순저축률

자료: 한국은행,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 2002. 10

저소득층 가계의 저축률은 1999년 -4.9%로 가계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득층도 1997년 27.3%에 달했던 저축률이 2002년 상반기에는 19.5%로 7.8%p나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에 고소득층 가계의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큰 기복 없이 36% 내외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저축률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확대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는 39.5%p를 기록하였다.

가계의 소득계층별 저축·소득·소비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95	'97	'98	'99	2000	2001	2002상반
저축률 (흑자율)	저소득층	7.2	9.1	3.7	-4.9	-2.0	-2.3	-3.4
	중소득층	25.6	27.3	27.0	19.9	17.8	17.4	19.5
	고소득층	38.0	37.5	41.8	36.3	34.4	36.2	36.1
	평균	29.0	29.6	31.5	25.1	23.6	24.5	24.9
	흑자율차이	30.8	28.4	38.1	41.2	36.4	38.5	39.5
소득	저소득층	12.1	7.6	-17.0	2.9	10.5	8.6	12.2
	중소득층	12.2	7.6	-11.8	3.7	7.6	9.1	10.3
	고소득층	11.3	4.6	-2.8	4.2	6.5	10.5	9.6
	평균	11.7	6.1	-8.2	3.9	7.4	9.7	10.2
소비	저소득층	13.7	7.1	-12.1	12.1	7.4	8.9	10.5
	중소득층	10.8	4.7	-11.4	13.7	10.4	9.6	5.5
	고소득층	8.9	2.6	-9.5	14.0	9.8	7.4	7.9
	평균	10.5	4.2	-10.7	13.5	9.6	8.5	7.4

주: 1) 저소득층은 소득 1~3분위, 중소득층은 소득 4~7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8~10분위

2) 고소득층 흑자율 - 저소득층 흑자율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중·저소득층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저축률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은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저축으로 반전하면서 가계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득층 저축률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3.8%p 하락하였다.

소득계층별 저축률 추이

(단위: %)

	1980~89년	1990~97년	1998~2002년	2002. 1/4~3/4
전체 평균	24.1	28.2	26.0	25.9
저소득층	3.1	8.8	-1.4	-1.3
중소득층	21.9	25.4	21.6	22.9
고소득층	26.8	36.1	37.2	37.4

주 : 저소득층: 소득 1~3분위, 중소득층: 소득 4~7분위, 고소득층: 소득 8~10분위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각호

이와 같이 가계저축률이 소득계층별로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1999년 이후 중·저소득층 가계의 소비증가가 소득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최빈곤층인 1분위가계를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소득·소비배율 추이를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는 커졌으나 소비배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자산가격의 상승, 저금리와 유동성 제약의 완화, 주택 및 내구재 보유율 상승 및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으로 저축 유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대규모 자본이득(capital gain)의 발생은 정상적인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축률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가격 폭등은 가계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산 가치를 급증시켜 가계소비 지출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초 및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이 저축률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주택보급률, 자가주택소유 비율의 상승 및 승용차 등 주요 내구재에 대한 보유비율이 급속히 높아져 주택마련 등을 위한 저축유인도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주택보급률, 자가주택소유비율 및 승용차보급률

	1995	1997	1998	2000	2001
주택보급률(%)	86.0	92.0	92.4	96.2	98.3
자가주택소유비율(%)	53.3	-	-	54.2	-
자가용 1대당 인구(명)	7.8	6.3	6.3	6.0	5.4

자료 : 건설교통부, 통계청

최근 들어 저금리 지속, 소매금융시장의 급성장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되어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에 의한 저축 유인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개인저축률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으로 소득을 높이려는 욕구보다는 소비와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소비증가도 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예금금리는 청·장년층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년층의 저축은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주로 채무자와 근로소득자 등으로 구성된 청·장년층은 금융비용이 감소하고 저축의욕도 저하되는 반면, 순저축 그룹인 노년층은 저금리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고, 고수익 금융상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예금금리와 저축률 추이

	1980~89년	1990~97년	1998~2002.1/4~3/4
예금금리(%)	11.2	9.7	6.5
총저축률(%)	31.7	35.7	31.1

주 :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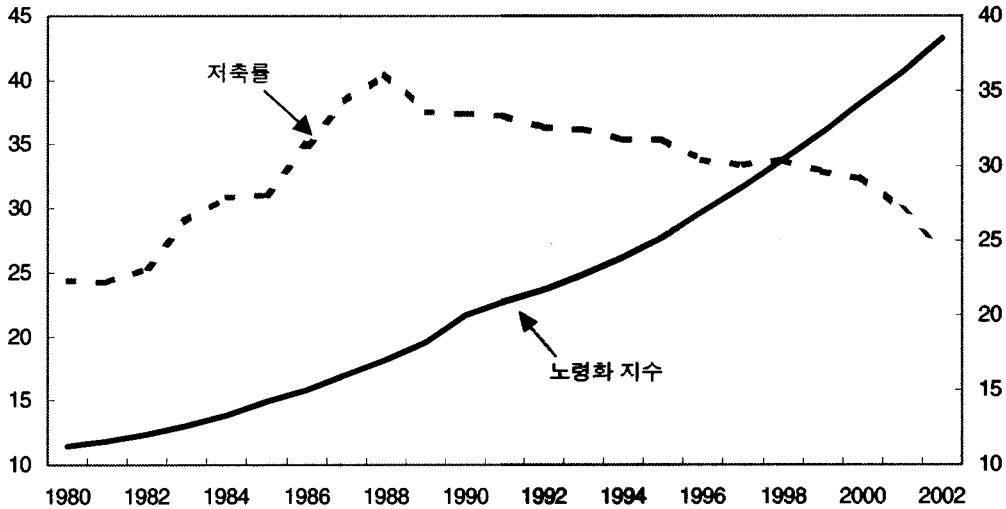
1980년대 이후 노령화 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저축률은 88년을 고비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고령화사회⁷⁾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시 보통 40~115년이 소요된

7)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인 사회, 고령사회는 14%인 사회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불과 19년만에 진입할 전망이다.

노령화 지수와 저축률 추이

(단위 : %)



주 : 1) 노령화지수는 $[(65\text{세 이상 인구}) / (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2) 2002년 저축률 수치는 1/4~3/4분기 평균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국민총저축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개인 특히 가계부분의 저축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최근 가계저축률 하락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계저축을 유인해온 저축동기가 크게 저하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마련 등을 위한 가계의 저축동기가 자가주택 보유율 상승 등으로 상당부분 충족되었고, 가계의 유동성제약이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됨으로써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유인도 감소하였다. 소득수준 향상 및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으로 장래소비를 위한 저축 보다는 현재의 소비와 레저를 추구하는 경향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대규모 자산이득 발생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지나치게 고급화·대형화 하면서 고가의 수입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과시적 소비 현상이 확산되어 소비증가가 국내소득의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소득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데도 기인한다. 가계는 현재 및 미래소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영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절제된 소비습관을 길러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가계부채 부실화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건전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2002년말 가계부채는 총 439.1조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부동산시장 활황세에 따라 주택대출이 증가하고 저신용계층 중심으로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문의 건전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6년 42%에서 2002년 75%로 높아졌다. 개인부분의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자산 비율이 2002년 2.09배로 2001년 2.44배 보다 낮아져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1개월 이상) 추이

(단위: %, 만명)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연평균 1달러 상승시)

	2002. 6	2002. 12	2003. 1	2003. 2	2003. 3
가계대출 연체율	1.30	1.50	1.94	2.14	2.06
신용카드 연체율	5.1	6.6	8.4	10.4	9.8
신용불량자	226.0	263.6	274.2	283.8	295.7

주 : 가계대출은 신용카드 채권 제외, 카드는 현재 9개 전업카드사만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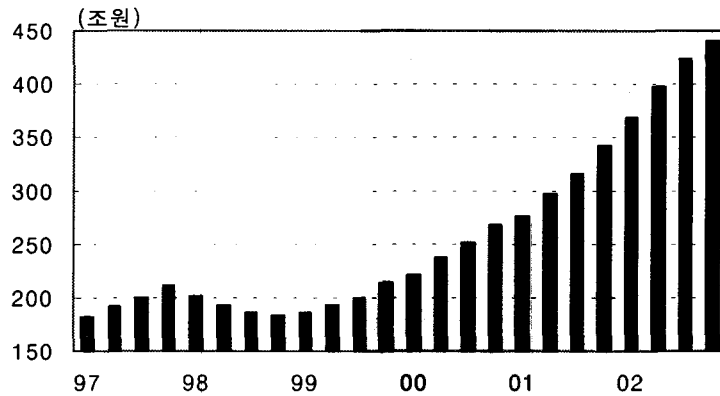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2002년 하반기 이후 경기 위축세가 심화되고 가계대출 부실화가 표면화되면서 금융부실을 초래하여 왔다. 최근 은행 및 카드사의 자구노력으로 연체율이 하락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신용불량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2002년 말 신용불량자와 개인과산자는 각각 264만 명, 1,335명으로 전년에 비해 7.6%, 98.7% 증가하였다. 신용불량자는 급증세를 이어가 2003년 3월말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화 문제가 은행, 카드사에 이어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3월중 할부금융사, 저축은행의 신용불량자가 10% 이상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누적과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강남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

출이 지속될 전망이다. 저금리의 장기화도 가계대출 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경기회복 지연과 실업률 증가로 인한 소득감소, 한계 중소기업 증가 등이 가계대출의 부실 심화와 소비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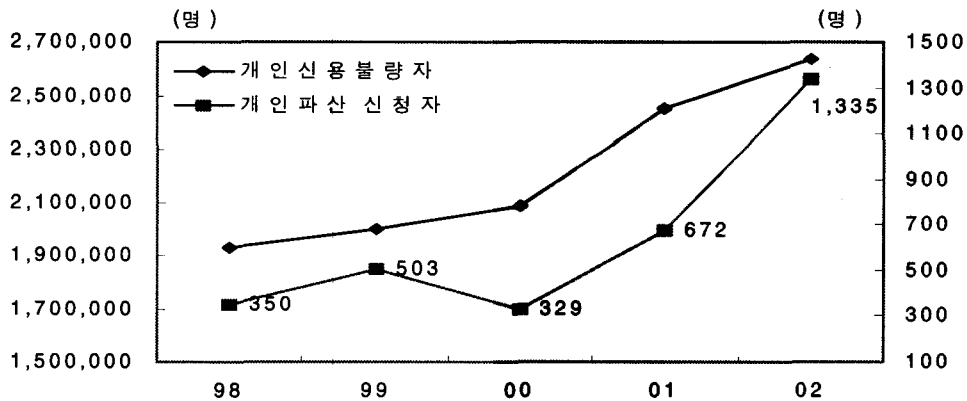
가계부채 잔액추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최근 경기동향과 당면과제」, 2003. 2. 19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와 가계파산도 동반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사상 최고치인 439.1조원으로 1998년 말(184조원)에 비해 2.4배 증가하였고, 가구당 부채는 3,000만 원을 상회하였다.

개인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신청자 추이



주: 2002년 4/4분기는 추정치

자료: 은행연합회, 대법원, 삼성경제연구소의 CEO Information, 「최근 경기동향과 당면과제」, 2003. 2. 19에서 재인용

향후 신용불량자와 가계파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기존 차입자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2001년 10월 전달에 비해 6조 1,221억 원 증가하였으나, 2003년 1월에는 전월에 비해 2,717억 원이 감소하였다. 젊은층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기 어려워서 이들 중 저소득 계층의 신용불량자 양산이 예상된다. 신용불량자와 가계파산의 급증은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된다. 신용카드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1%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금융회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2000. 12말	2001. 12말	2002. 6말	9월	11월
은행 가계대출	2.46	1.30	1.29	1.60	1.60
은행 점영카드	7.52	7.31	9.26	11.09	12.2
전업카드사	5.2	5.8	7.9	9.2	11.7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2003.1, 삼성경제연구소의 CEO Information, 「최근 경기동향과 당면과제」, 2003. 2. 19에서 재인용

V 가계의 대응전략

1. 심리불안 해소가 관건

대내외 위협요인 중 가계경제활동에 가장 많은 제약을 준 심리불안 요인으로 미-이라 크간 전쟁, 소비자금융 관리 강화(가계대출 억제, 카드사용 제한 등), 북한 핵 문제(17.9%)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소비자 금융관리 강화는 이미 현실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고 카드의 사용 한도 역시 눈에 띄게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당분간 위협요소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당분간은 소비심리와 가계지출 위축은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비지출을 줄이고 현금보유 확대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2003년 1/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비지출을 가장 먼저 줄일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소비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축을 줄이고(20.7%), 부동산 구입 보류 혹은 매각(12.7%), 가계대출 상환(6.9%), 주식투자 축소(6.8%) 순으로 답변했다.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부채의 상환을 통한 가계 부담 축소와 투자의 축소를 통하여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대내외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라 해도 소비지출을 늘리려는 가계보다는 저축증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고 응답한 가계(51.4%)가 많은 것이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대비로 소비는 당분간 자제하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 지출대상으로 손에 꼽은 것은 부동산 구입(18.9%), 소비지출 증가(12.3%), 주식투자 확대(8.5%), 가계대출 증가(4.4%)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내외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소비지출을 제외한 선택적인 소비는 지출을 유보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취할 수 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현금보유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수입과 상황을 감안하여 가계지출 계획을 수립

연간수입 5000만원 이상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경기기복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가족 역시도 워낙 규모가 작아 크게 변동이 없다. 하지만 2000~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가족들은 매우 민감하게 경기에 따라 지출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자신의 가족이 속한 계층이 어디인가를 꼼꼼이 생각해서 현재 지출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녀에 대한 경제교육의 강화

앞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고생 중에서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금전출납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61.4% 정도 되었다. 최근에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20대 신용불량자 양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서부터 경제와 투자에 대한 개념을 교육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 바람직한 소비수준과 저축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오는 7월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중시 등 금융산업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학습교재를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배포한다고 한다. 또한 금융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은 초등학교때 부터 금융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⁸⁾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 김범식, 저축률 변화추이 분석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오승구 외, CEO Information 「이라크戰 이후 국내외 경제의 향방」, 삼성경제연구소, 2003. 4. 30
최호상, 2003년 2/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삼성경제연구소, 2003. 5
_____, 2003년 2/4분기 소비자태도 부가조사 「현 경기불안 요인과 소비자 심리」, 삼성경제연구소, 2003. 5
_____, 2003년 1/4분기 소비자태도 부가조사 「대내외 위협요인과 가계의 경제활동」,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_____, 2002년 4/4분기 소비자태도 부가조사 「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2. 11
_____,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8) 한국경제신문, 2003년 05월 12일자.

황인성 외, CEO Information, 「최근 경기동향과 당면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19
통계청, 2003년 4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4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각호
통계청, KOSIS 자료, 각년도
한국은행, 2002년중 가계신용 동향, 2003. 3
한국은행,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동향과 특징, 2002. 10
한국은행,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 2002. 10